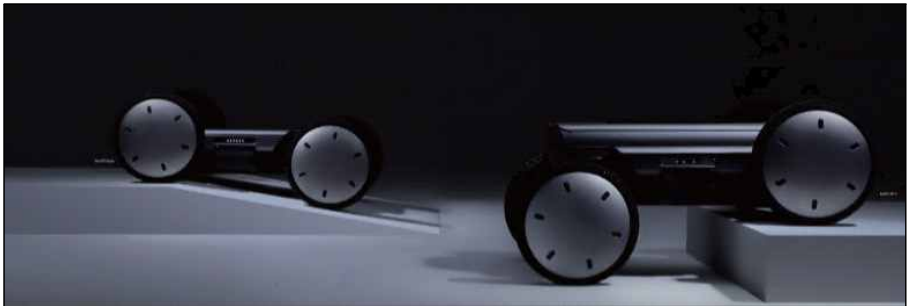


2026년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정부 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 ☐ 사업명: 2026년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 ☐ 사업 취지: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촉진 장려함으로써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시상규모
 -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2점)
- ☐ 공개검증 기간: 2026. 08. 20. ~ 2026. 09. 03.(15일간)
- ☐ 정부 시상 대상 상품 설명 요약: 붙임 참조
- ☐ 공개검증 내용
 - 정부시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작품 제작 사실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권기범 주무관
(☎ 044-203-4347, bumki5930@motie.go.kr)
- ☐ 참고사항
 - 붙임 상품들은 정부시상 대상 작품 후보들로서 공개검증 기간이 지난 후 검증 결과에 따라 최종 상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작품 표절 여부 등, 정부시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정부 시상 대상 상품 후보 리스트

접수번호	G2026A01_00071
작 품 명	모베드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MobED: 적응형 바퀴 로봇의 패러다임 전환 대부분의 바퀴식 로봇은 평탄하고 예측 가능한 바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지형—계단, 턱, 자갈, 실내외 경계 같은 곳—에 직면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계는 복잡한 다리식 시스템이나 용도별 특화 플랫폼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로봇공학이 통제된 환경에만 제한된 전문 기계들로 분화되었습니다. MobED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동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편심 휠 메커니즘과 독립형 서스펜션, 능동형 자세 제어를 결합함으로써, 핵심 플랫폼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지형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혁신은 바퀴식 로봇 카테고리를 정적인 이동 장치에서 적응형 인프라로 발전시킵니다. 자동차 수준의 엔지니어링과 확장 가능한 제조 공정을 통합함으로써, MobED는 한때 연구실에만 갇혀있던 고성능 이동 기술을 상용 배포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실내와 실외 환경을 막힘없이 운영하며, 여러 개의 전문화된 로봇이 필요한 상황을 줄여줍니다. MobED는 단일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 모듈형 플랫폼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표준화된 연결 인터페이스는 물류, 검사, 서비스,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수준의 유연성은 운영 복잡도를 낮추고 배포 시나리오를 확장시킵니다. 지형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재정의함으로써, MobED는 적응형 확장 가능한 로봇공학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수립합니다. 바퀴식 로봇을 환경에 제한된 기계에서 다목적 실제 세계형 자율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096
작 품 명	쿠쿠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큐브 IH밥솥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현대의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빌트인 가전과 심리스 키친과 같은 시각적 일체감을 중시하는 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큐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방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가전을 목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를 걷어내고 제품을 하나의 인테리어 오브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존 제품들이 지닌 과도한 장식과 외부 버튼을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기존 밥솥은 디스플레이와 버튼 등 다양한 정보 요소가 외부로 드러나 시각적으로 복잡하였으나, 본 제품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히 감춰지는 히든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직관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시각적 피로도를 줄이고, 사용자가 선택한 기능만 표현함으로써 제품과의 직관적인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면의 노출되는 클램프 버튼을 상단의 핸들 내부의 혁신적인 락킹(Locking) 구조로 통합하여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관의 정제미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품은 기능 중심의 주방가전에서 벗어나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가전과 함께 배치되었을 때에도 통일된 미감을 형성하는 디자인으로 현대 주방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밥솥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098
작 품 명	쿠쿠 에코웨이 큐브 음식물처리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카운터탑 위에 두고 사용하기 좋은 소형 음식물처리기 기존의 음식물 처리기는 크고 냄새가 많이 나 보조 주방이나 베란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리거나 주변이 쉽게 더러워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필터 성능을 강화하고 한국 주방의 일반적인 구조와 상·하부장 평균 높이를 고려해 싱크대 위에서도 뚜껑이 상부장에 닿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멀리서도 작동 상태와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키가 크지 않은 사용자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부담 없는 슬림 사이즈와 정제된 미니멀 디자인으로 주방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56
작 품 명	쿠첸 제로핏 음식물처리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주방은 기능적인 작업 공간을 넘어 생활과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처리기를 숨겨야 하는 주방 기기가 아닌, 공간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생활가전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디자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품의 모든 요소는 시각적 부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각진 모서리를 배제한 연속된 곡면과 플로팅 비례를 적용하여 실제 크기보다 더욱 작고 가볍게 인식되도록 하였으며,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부드러운 인상을 구현하였다. 인터페이스 역시 형태보다 기능이 먼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닌, 형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인터페이스와 히든 LED를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하나의 심리스 오브제로, 작동 시에는 직관적인 정보만 드러나는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였다. 건조통 또한 제품의 조형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알약 형태의 장공형 구조를 적용하여 컴팩트한 비례를 유지하면서도 넓은 투입구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조형과 사용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접수번호	G2026A01_00157
작 품 명	쿠첸 마이콤 6인 밥솥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필수 기능만 남겨 선택은 쉽게, 절제된 디자인으로 본질을 담은 밥솥. 최근 밥솥 시장은 압력과 IH 기술을 중심으로 고기능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선택 기준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에게 최고 사양의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 프로젝트는 밥솥의 본질인 '일상의 한 끼'에 집중해, 일상에 필요한 기능만 담은 마이콤 밥솥을 개발했다. 밥, 죽, 찜 등 기본적인 조리에는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부가 기능은 과감히 제외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조작 방식을 단순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을 완성했다. 주요 타겟은 세컨드 밥솥이 필요한 사용자와 요리 빈도는 낮지만 집밥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1인 가구이다. 이에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파츠 구성을 최소화해 하나의 덩어리처럼 간결한 인상을 만들었다. 단순한 구성 속에서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곡선의 흐름을 핵심 조형 요소로 강조해, 절제된 형태 안에서도 따뜻하고 유연한 인상이 드러나도록 했다. 컨트롤부에는 88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표정 UI를 적용해, 사용자가 제품의 작동 상태를 보다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쿠첸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과 조형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계승해, 소비자가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엔트리 제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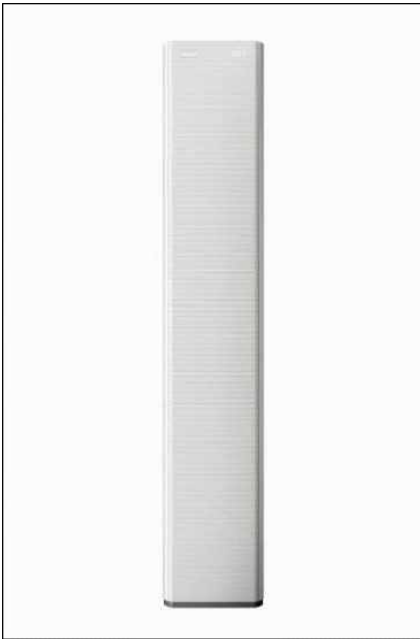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A01_00166
작 품 명	Bespoke AI 무풍콤보 프로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Bespoke AI 무풍콤보 프로의 디자인 의도는 에어컨을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 요소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무풍 기술이 지난 10년간 직바람 없는 쾌적함을 기반으로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가전으로 진화해온 흐름처럼, 본 제품은 '기계를 드러내는 디자인'에서 '공간에 통합되는 디자인'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전면은 무풍 흡을 기능 요소로 드러내기보다 연속된 표면 질감으로 정제하여 시각적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대신 무풍 기능을 하단 영역으로 재배치하여 공간과의 조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은 기술을 강조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간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레이더 기반 AI 기술은 사용자의 위치와 행동을 인식해 공기 흐름과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공간이 스스로 조정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향상을 넘어 생활 환경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디자인은 공기와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며, 기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021
작 품 명	2분할 매트 인덕션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이 디자인은 인덕션 쿡탑을 단순한 조리 기기가 아닌, 주방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쿡탑의 광택 표면은 사용 흔적이 쉽게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외관 만족도가 떨어지고, 완전한 터치 조작 방식은 조리 중 직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 높은 무광 표면과 촉각적인 스피ن휠 노브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깨끗하고 세련된 주방 환경과 함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조리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54
작 품 명	하츠 존프리 인덕션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하츠 존프리 인덕션은 가전을 넘어 주방 공간의 미학을 완성하는 제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고정된 화구 개념을 탈피한 존프리(Zone-free) 기술로 용기의 크기와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조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술이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심리스 디자인'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그래픽을 최소화하여 블랙 글라스의 깊이감을 드러내고, 조리 시에는 블루 라이팅과 LCD 정보가 은은하게 나타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술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것이 하츠가 지향하는 하이엔드 주방의 가치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076
작 품 명	파우제 뉴 엠포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Pause New M4는 'Contoured Calm' 디자인 컨셉을 통해, 유려한 실루엣이 전하는 편안하고 안정된 감성을 구현한 라운지 체어형 안마의자입니다. 우아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기반으로 파우제의 헤리티지인 Egg-shell 조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와 높은 사용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외형은 기능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용 시에는 리클라이닝과 빌트인 풋레스트를 통해 무중력 포지션에 가까운 편안한 휴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체어 단독 구조로 설계되어 거실, 서재, 침실 등 다양한 공간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기존 파우제 대비 부피를 줄여 공간 활용성과 심미성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마사지 기능을 갖춘 가전이면서도, 일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리빙 오브제로서 새로운 휴식 경험을 제안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077
작 품 명	밸런스 에어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밸런스 에어는 세라젼의 건강 철학인 '7-HABIT' 중 '에너지 관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이를 일상 공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밸런스 에어는 단순한 생활가전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정제된 라운드 스퀘어 실루엣과 수직 세레이션 패턴은 공기청정기 특유의 벤틸레이션 구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능적 구조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뉴트럴 베이지 컬러는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에 조화롭게 스며들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IMD 패널을 적용, 히든 터치 인터페이스와 토출구를 하나의 면으로 매끄럽게 통합함으로써 더욱 정제된 오브제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간접식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62
작 품 명	Bespoke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Essence of Air] 에어 제품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사용자에게 조용한 쾌적함 (Quite Pleasantness)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F90H는 레이더 센싱과 AI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상황과 공간을 이해하고 최적의 기류를 물흐르 듯이(Fluently) 제공합니다. 또한 건축적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공간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에센셜 디자인을 적용,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단순화된 형상과 강화된 센싱·에어컨트롤 기술을 통해, AF90H는 Quietly intelligent Future Living을 제공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80
작 품 명	더 무빙스타일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The Movingstyle은 디스플레이 경험의 중심을 기기에서 사용자의 위치로 전환하는 데에 디자인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의 생활 환경은 고정된 공간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동선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The Movingstyle은 사용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 콘텐츠 경험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경험을 제안하며, 공간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경험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성을 넘어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06
작 품 명	배리어프리 안내 키오스크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비대면 서비스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장애인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경직된 시설물 형태로서 사용자에게 단절감을 주던 키오스크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함께 소통하는 키오스크(Communi-bot Kiosk)'로의 진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전 과정을 쉽게 안내하며, 사용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에스코트(Smart-Escort) 키오스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특수 목적 기기 특유의 이질감을 덜어내고, 공공장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미니멀하고 슬림한 조형과 개방감을 강조한 외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형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점자를 적용한 물리적인 배리어프리 키패드 규격과 디스플레이 UI 화면 모드까지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 점자 키패드 모듈의 표준화와 더불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아바타 수어 모드',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모드',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낮은 UI 모드' 등 소프트웨어 단의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설계를 통해, 일반 사용자를 포함한 모두가 거부감 없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포용적인 배리어프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수번호	G2026A01_00158
작 품 명	Water Purifier CK3 Series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CK3 Series는 기존 정수기에서 보기 드문 비대칭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수기가 가졌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동화되는 '건축적 실루엣의 오브제 가전'을 지향합니다. 기하학적인 직선과 정밀한 면 분할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표현하였으며,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는 복잡한 라인을 숨기고 기능을 직관적인 전면 디스플레이 스퀘어 모듈 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정수기가 단순한 위생 가전을 넘어 주방의 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가구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 의도를 설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시각적·감성적 유희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82
작 품 명	뮤직 스튜디오 5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 어느 공간에나 어울리는 디자인 기능과 미학을 함께 담은 뮤직 스튜디오 5는 현대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었다. 단순히 소리를 재생하는 기기를 넘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오브제로서, 청각적 경험과 시각적 만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기술 중심 전자제품이 아닌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제품으로 일상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를 구현하였다. - 형태로 표현한 사운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클래식 오디오의 상징적인 Cone 형태에서 출발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오디오의 본질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삼성만의 새로운 오디오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특히 원형을 디자인의 핵심 모티프로 적용해 전면 중심에 위치한 도트(Dot)와 이를 감싸는 오브(Orb)의 조형을 완성했다. 이는 소리의 울림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 음악과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연상하도록 하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이다. - 기술을 감춘 순수한 조형 경험 전면에는 미세 타공을 적용해 스피커 유닛을 시각적으로 감추고 조형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멀리서는 하나의 오브제로 보이지만, 사용 시에는 풍부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해 시각적 미학과 청각적 경험의 균형을 완성한다. 또한 TV와 Q-Symphony 연동으로 입체적인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며, 공간에 최적화된 오디오 환경을 구현한다. 뮤직 스튜디오 5는 아름다운 조형과 차별화된 사운드 기술을 결합해 공간과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오디오 디자인을 제안한다. 

접수번호	G2026A01_00205
작 품 명	LG 에어로미니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AeroMini는 기존의 고정된 형태, 기능 중심의 공기청정기를 넘어 사용자의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확장형 플랫폼으로서 재정의하고자 한 제품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현대의 주거 환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UP-Kit 모듈 결합 구조를 채택해 기능을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쉬운 조립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공기청정, 조명, 수납, 공기 흐름 제어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제품 구성을 완성하는 능동적인 사용 방식을 의도하여 제품이 공간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필요한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241
작 품 명	인사이 음식물 처리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인사이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불편한 행위를 주방 안에서 더 조용하고 쾌적한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기계적이고 투박한 인상을 줄이고, 주방과 다이닝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생활가전의 모습을 목표로 했다. 부드럽게 라운딩된 사각 형태와 안정적인 비례는 공간에 과하게 드러나지 않는 차분한 존재감을 만든다. 낮은 채도의 매트한 컬러, 절제된 로고와 디테일은 위생적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하며, 오래 두고 사용해도 질리지 않도록 했다. 사용 측면에서는 음식물 투입, 조작, 관리가 직관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냄새, 소음, 위생 관리, 공간 점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음식물처리기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주방을 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 시크릿 패널을 적용해 외관의 미감을 해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했다. 코드선의 색상까지 제품과 통일하여 작은 요소까지 정돈함으로써, 기능성과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함께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생활가전을 추구했다. 일상에 조용히 스며드는 디자인을 지향했다. 

접수번호	G2026A01_00210
작 품 명	LG 엑스붐 미니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The innovation lies in its Universal Compatibility and Modular Structure. Instead of forcing users to buy proprietary mounts, LG xboom Mini adopts an Open Architecture approach with a standard 1/4-inch screw hole. This simple yet profound decision instantly unlocks compatibility with thousands of existing action-cam mounts, pivoting the device from a passive speaker to an active gear essential. Furthermore, the Bayonet-Style replaceable grill is a mechanical breakthrough. Inspired by camera lens mounts, this tool-less mechanism allows users to swap grills instantly with a satisfying click. This not only enables aesthetic customization but also simplifies cleaning and repair, significantly extending the product's functional lifespan beyond typical consumer electronics. 

접수번호	G2026A01_00043
작 품 명	스펙트라 플래티넘 미니 유축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수유 기간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유 이후에도 생활 공간에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유축기를 목표로 디자인했습니다. 출산 이후 가정에는 다양한 육아용품이 늘어나지만, 많은 제품이 기능 중심의 외관으로 인해 생활 공간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플래티넘 미니는 유축기의 기능성은 유지하면서도 조명과 오브제의 감성을 더해, 사용자가 제품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 제품의 사용 기간을 확장하고, 수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 경험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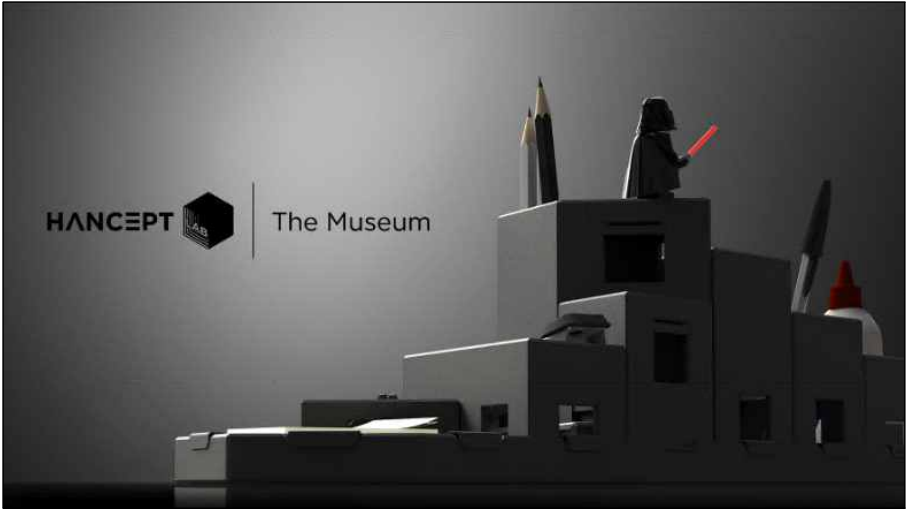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A01_00173
작 품 명	북미향 조리기기 시리즈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US Cooking Suite는 전통적인 조리기기가 가진 견고하고 물리적인 구조미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적인 주방 공간의 시각적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과감히 배제한 Robust Modern을 디자인 핵심 언어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인 비례감과 직선 중심의 프레임 구조를 정밀하게 조율하여, 주방 환경에 배치되었을 때 공간 전체의 시각적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적인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도어 라인을 일체감 있게 수평으로 정돈하여 시각적 공백과 복잡함을 최소화했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품 구조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Slide-in Range는 신규 디자인된 Professional Bar Handle은 Slide in Range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아우르기 까지 전체에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패키지의 일체감을 완성하는 디자인 키가 되었습니다. Over-the-Range는 Slant 디자인이 주는 시각적 견고함과 조리 시 하단의 Cooktop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시야각을 약 15% 이상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Slide-In Range와 조화를 이뤄 하나의 시리즈임을 보여주며, 조리기기에서 Semi - Comercial 한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가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리경험을 선사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1_00179
작 품 명	S95H, OLED TV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S95H의 디자인은 화면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제품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특히 점점 대형화되는 스크린 제품이 사용자 공간 속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다. 일반적인 TV 는 전면의 두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후면 구조로 인해 벽걸이 설치 시 벽과의 거리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공간과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한계가 있다. S95H는 전면 두께의 슬림함은 유지하면서도 후면 구조를 하나의 프레임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메탈 프레임을 제품의 가장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벽걸이 설치 시 제품이 벽과 일정한 간격이 있는 형상이 아니라 벽에 완전하게 밀착된 형태로 설치된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시각적으로도 벽과 일체된 인상을 형성한다. 또한 프레임은 디스플레이의 경계를 감싸며 검은 화면과 주변 공간 사이의 시각적 대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S95H는 공간 점유율이 큰 대형 가전이 주거 인테리어를 압도하지 않고, 공간과 블렌딩되는 시각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접수번호	G2026A01_00200
작 품 명	스마트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전기.전자제품
작품설명	Perfect Symmetry 기존 폴더블 기기보다 한층 젊고 젠더리스한 타겟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모두가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대칭(Perfect Symmetry)'의 본질적인 시각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조형으로 시각화 했습니다. 닫았을 때의 10:16 비율은 일상의 익숙한 사물처럼 직관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며, 펼쳤을 때의 4:3 비율은 화면 가득 깊이감 있는 몰입감을 전달합니다. 접히고 열리는 동적인 상태 변화의 전 과정에서 형태적 대칭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시각적 흔들림 없는 균형미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비례와 대칭의 미학은 기술이 주는 낯선 인상을 지워내고, 사용자의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편안함으로 스며들게 하는 디자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19
작 품 명	냉온 스마트 도시락 시리즈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HAPEL Fresh Care는 냉·온 제어 기술을 친숙한 식생활 제품에 적용하여, 신선 보관·온도 관리·개인 식사 루틴을 통합한 능동형 F&B 디바이스를 제안함. 한식 도시락, 샐러드·과일 중심의 건강식, 초밥·간편식, 피크닉·아웃도어 식사 등 온도와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다양한 식문화에 대응하며, 국가와 생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 식사 수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케어 제품 가치를 제시하고자 함. • 온도까지 디자인하는 새로운 식사 경험 사용 목적에 맞게 음식의 맛과 식감, 신선도를 식사 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시락을 수동적 보관 용기에서 능동형 F&B 케어 디바이스로 확장함. • 기술보다 생활에 가까운 디자인 매일 사용하고 싶은 생활친화적 태도를 지향함. 컴팩트 모듈 디자인, 상·하 적층 구조와 분리형 모듈을 적용하여 책상, 가방, 차량,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간결한 사용을 위해 손잡이·잠금부·조작부를 직관적으로 정리함. • 스마트 푸드케어로 개인 식생활 관리 음식 접촉부와 전자 구동부를 구분하고, 내부 용기는 분리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생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임. 앱 연동, 메뉴별 온도 추천, 식사 관리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스마트 식사 케어 제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직접 준비한 식사를 더 안전하고 즐겁게 관리하는 새로운 도시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이를 통해 HAPEL Fresh Care는 기존 도시락 시장을 넘어, 신선 보관·온도 관리·개인 식사 루틴을 통합한 새로운 개인 식생활 시장을 제안함. 

접수번호	G2026A04_00075
작 품 명	옥로립 와인마개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조선시대 성인 남성의 필수 관모였던 '갓(흑립)'에 흰 옥으로 만든 백로 장식을 얹은 '옥로립'은 청렴결백한 선비의 기개와 고위 관료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갓이 가진 절제된 선의 미학 위에, 진흙 속에서도 때 묻지 않는 백로(옥로)의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옥로립의 상징성을 현대 주류 문화와 결합하여, 일상적인 술자리를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격조 높은 자리로 만들어주는 와인 마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67
작 품 명	더뮤지엄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대부분의 데스크 오거나이저는 책상 위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우선된 단순한 원형 또는 사각형 수납함으로 디자인되어 정리 이상의 효과를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뮤지엄’은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다양한 목적과 크기의 도구들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제품 자체가 보여주는 시각적 새로움이 데스크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5_00013
작 품 명	투톤 카본 프리다이빙 핀 스완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스타일 디자인
작품설명	1. 유체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 프리다이버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압도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물리적 저항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유체역학적 디자인을 핵심 의도로 삼음. - 물의 저항을 최대로 줄이는 매끄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피닝을 위한 최적의 블레이드 각도인 '26도'를 도출하여 조형적으로 구현함. 2. 한치의 힘 손실도 허용하지 않는 인체공학적 구조 - 기존 서양인 체형 기준의 풋포켓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다이버의 신체 데이터를 반영하고, 내측 공극(빈틈)을 최소화한 아시안 핏 구조를 완성함. - 발과 핀 사이의 유격을 완벽히 차단하는 동시에 '블레이드 삽입형 포켓 설계'를 채택하여, 다이버의 발끝에서 시작된 힘이 단 한치의 손실도 없이 블레이드 전체로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구조적 밀착감을 극대화함. 3. 시장 최초의 모듈러 혁신과 미니멀리즘 감성 - 하나의 풋포켓으로 숏 블레이드와 롱 블레이드를 직접 간편하게 상호 교체할 수 있는 '모듈러 디자인'을 실현하여 사용자의 환경적·목적별 한계를 허물음. - 화려하고 자극적인 기존 장비들과 차별화되는 정제된 미니멀리즘 무드와 프리즘 텍스처를 통해, 수중 안팎에서 기능적 완벽함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함.



접수번호	G2026A04_00036
작 품 명	알고케어 E1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알고케어 E1의 디자인 목표는 복잡한 영양관리 기술을 사용자가 어렵게 인식하지 않고, 집 안에서 매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달항아리의 부드러운 곡선과 안정적인 비례에서 조형적 영감을 받아, 기술 제품의 차가운 인상보다 건강관리 기기를 편안하게 감싸는 따뜻한 오브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웜톤 화이트와 그레이, 은은한 실버 액센트, 세라믹을 연상시키는 무광 질감을 적용해 주방, 거실, 침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절제된 외형과 슬림한 수직 비례를 통해 여러 영양제 용기가 흩어져 있던 공간을 하나의 정돈된 웰니스 오브제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영양제가 분리된 요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나의 연속된 제품 경험으로 통합했습니다. 전면 화면에서 확인한 맞춤 영양 조합이 하단 토출부에서 실제 영양제로 완성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AI의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숙한 생활가전의 조작 흐름을 바탕으로 터치스크린과 타워형 구조를 구성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기술을 직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 웰니스 루틴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50
작 품 명	유시몰 x 헌터 콜라보레이션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유시몰은 화려한 곡선과 아기자기한 요소 사용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헌터는 BI만으로 제품 디자인이 완성되고 컬러도 한 제품에 3가지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미니멀합니다. 그래서 유시몰을 심플하고 볼드한 이미지와 결합하는 것이 숙제였고, 솔리드한 컬러플레이 위주의 패키지로 풀어내 과감하게 두 브랜드의 BI에만 시선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브랜드가 현대적인 브리티쉬 모던 룩을 선보이며 이미지를 환기시킬 수 있었고, 브랜드의 오랜 팬들은 디테일에서 두 브랜드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시몰의 두 라인(오리지널/퍼플화이트닝)에 적용되었는데, 라인에 따라 부츠의 컬러도 다르게 매칭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욕실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웃도어에서도 위생을 중시하는 아시아 고객들의 디테일한 습관 차이를 반영해 제품을 패셔너블하게 캐리할 수 있는 파우치와 호보백을 함께 증정했습니다. 기획세트 패키지에는 헌터 부츠에 들어가는 시그니처 패턴을 유시몰의 프레임과 매치해 두 브랜드의 디자인이 이질감없이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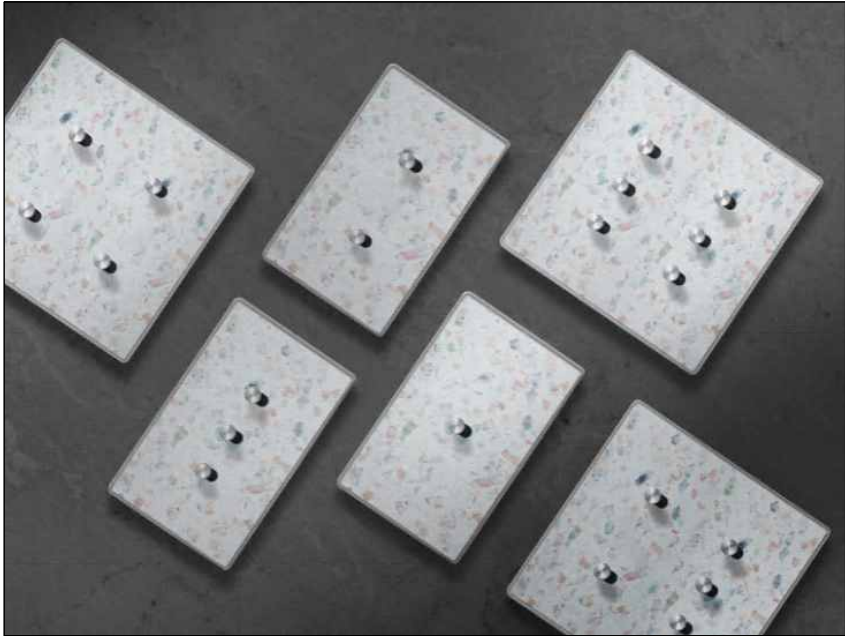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A04_00051
작 품 명	유니버설 플로우 샤워 솔루션 (모두를 위한 샤워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욕실은 모든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욕실의 안전 요소들은 사전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필요 시 추가하는 선택적 옵션으로만 인식되어, 모든 사용자를 위한 기본 요소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손잡이와 샤워시트는 대표적인 욕실 안전제품이지만, 여전히 특정 사용자나 제한적인 상황을 위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실제 필요성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욕실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식에 주목하였다. 안전은 특정 상황에 한정된 기능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원하는 기본 조건이며, 별도의 보조 장치가 아닌 욕실 공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 플로우 샤워 솔루션은 샤워기, 안전손잡이, 샤워시트를 하나의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이동에서 지지, 샤워, 휴식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능적 필요를 강조하기보다 욕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사용성을 통해 안전과 편안함이 일상 속 기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제품은 안전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아닌, 안전과 편안함이 욕실의 기본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환경을 제안한다. 

접수번호	G2026A04_00022
작 품 명	버블리 인클루시브 칫솔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발달장애인의 양치는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매일의 전쟁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일상 과제입니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칫솔이 거의 없어, 대부분 일반 칫솔을 자주 교체해 사용하거나 일부 보호자가 손잡이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버블리 칫솔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치과의사, 치위생사, 돌봄 종사자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품은 '비싸고 투박하다'는 기존 인식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심미적 완성도와 기능적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용자와 보호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적인 구강 건강 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버블리 칫솔의 핵심 디자인 의도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53
작 품 명	현대 사원증 케이스(맥세이프)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불편함은 최소화, 선택은 최대화] 우린 동료 임직원들이 목에 사원증을 걸고 다니는것에 불편함을 느껴 카드만 분리하고 소지하는 케이스가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소지 방법이 전부 다름에 따라 사원증 훼손률이 증가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사원증 카드를 교체하게 된 사원이 다수였습니다. 목에 거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원이 있다면, 각자 편한 방법에 맞춰 소지할 수 있도록 사원증 케이스를 진화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메인 타스크였습니다. 사원증 케이스를 모듈화 하고 맥세이프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원들은 목줄 종류부터 휴대 방법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79
작 품 명	ONOF P 시리즈 – 업사이클 페이퍼마블 스위치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ONOF P Series는 기능 중심의 전기 스위치를 공간의 분위기와 감성을 완성하는 생활 오브제로 재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사용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작은 요소에도 소재의 가치와 감각적인 경험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산업 폐종이를 새로운 물성과 조형성을 지닌 인테리어 소재로 전환하고, 종이의 흔적과 질감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소재 자체의 서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업사이클 소재가 오브제나 소형 굿즈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ONOF P Series는 이를 실제 건축·인테리어 하드웨어 영역까지 확장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친환경 제품이 기능적이거나 투박하다는 기존 인식을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심미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을 고려한 소재 선택이 특별한 소비가 아닌 일상 속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접수번호	G2026A04_00015
작 품 명	멍 900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MUNG 900(멍싱크)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확대되고 있는 펫 전용 공간 및 펫룸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욕실과 일반 싱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호자의 허리 부담, 물 튀, 미끄러움, 비효율적인 동선 등의 불편과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개선하고자 반려견과 보호자의 행동 패턴을 함께 분석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단턱 구조와 미끄럼 및 충격을 줄이는 전용 실리콘 매트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케어 환경을 구현했으며, 실리콘 매트는 소음 완화 기능까지 더해 반려견의 불안감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스텐 와이어 바스켓 시스템을 통해 세척, 건조, 용품 보관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하나의 동선 안에서 자연스러운 케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니멀한 스테인리스 디자인은 주거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펫 케어 제품을 생활 인테리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안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44
작 품 명	링크 그레이티티W pro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링크 그레이티티W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스마트 음식물처리기이다. 음식물처리기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전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연결되는 스마트 환경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처리 성능과 사용 경험, 공간 조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을 목표로 하였다. 그레이티티W는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디자인의 초점을 두었다. 기존 전면 센서 대비 상단 모션센서를 통한 비접촉 자동 개폐, 직관적인 LED 디스플레이, 전용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실시간 상태 확인 및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음식물 처리 과정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물 투입량과 처리 현황을 데이터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기기 상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형적으로는 대용량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공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제된 비례와 부드러운 곡면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주방 환경 속 다양한 가구 및 가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기능 중심의 기계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프리미엄 생활가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레이티티W는 강력한 처리 성능과 스마트 기술, 공간 친화적 디자인을 결합하여 음식물 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더욱 편리한 주방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마트 주방가전을 지향한다. 

접수번호	G2026A05_00017
작 품 명	갤럭시 A57 카드 슬롯 케이스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스타일 디자인
작품설명	갤럭시A57 카드슬롯케이스는 보호 기능과 실용적 수납을 하나의 구조 안에 통합한 기능 중심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의 크레들 부분은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형태와 색상이 은은하게 비춰보여 시각적 경험과 경량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면에는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을 배치하고, 유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TPU 소재를 사용하여 카드 삽입과 분리에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두 상이한 소재를 기능에 따라 분리 적용함으로써, 보호 영역과 수납 영역 각각의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소재의 상이함을 톤온톤 컬러를 통해 편안하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4_00011
작 품 명	리네브 베이비룸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리빙 디자인
작품설명	리네브(Lineve)는 안전 가드 카테고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복잡한 도심형 주택에서 흔히 겪는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자 '하이퍼 모듈 시스템(Hyper-Modular System)'을 도입했습니다. 60, 70, 80cm 단위의 세분화된 유닛을 통해 10cm 단위의 정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평면도에도 맞춤형으로 들어맞는 '건축적 핏'을 구현하여 부모들에게 공간적 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의도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양육의 패러다임을 '가둠'에서 '안전한 자율성'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를 제한적인 '케이지'에 가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스탠드 디자인을 통해 주방처럼 위험한 공간만을 차단하는 개방형 '안전 파티션'으로의 새로운 사용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집안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부모와 아이 간의 시각적 접촉과 유대감을 강화해 집안일 중 발생할 수 있는 분리 불안을 줄여줍니다. 미학적으로는 금속의 모따기(Chamfer) 가공에서 영감을 받은 '베벨 엣지(Bevel Edge)' 디자인을 적용하여 유아용품은 유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습니다. 이 각진 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부피를 늘리지 않고도 패널의 강성을 높여주는 구조적 리브 역할을 철저히 수행합니다. 놀이방 울타리에서 시작해 유아기 이후에는 안전 가드 및 영구적인 공간 분리용 파티션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함으로써 제품 수명 주기를 획기적으로 연장하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 오브제로 자리 잡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3_00013
작 품 명	에이와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산업기계 및 공구
작품설명	에이와는 '전문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일상적인 주거 공간 안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마사지 베드'입니다. 안정적인 실루엣과 차분한 CMF를 통해 거실·침실·홈 라운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홈 헬스케어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에이와는 체어 모드(등각도 120도)와 베드 모드(180도)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는 구조를 기반으로, 어떤 각도에서도 사용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조형과 색채, 디테일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앉은 자세와 누운 자세 모두에서 팔과 어깨가 안정적으로 지지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안마 기능을 넘어 “편안하게 기대고 누울 수 있는 개인 휴식 플랫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외측 팔 파팅라인과 백커버 사이에 배치된 무드등은 분위기를 완성하는 장치로 계획되었으며,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공간의 톤에 어우러지는 감성적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와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인테리어 오브제 사이의 경계를 낮추어, 현대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프리미엄 마사지 체어”를 지향합니다. 

접수번호	G2026A07_00012
작 품 명	부산2호선 신조전동차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운송기기 디자인
작품설명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디자인은 단순한 차량 외형 개선을 넘어 '도시와 자연, 사람을 잇는 디자인'을 핵심 가치로 기획되었다. 낙동강과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사용자의 이동 경험 자체가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내외 디자인 전반에 부산 2호선의 지리적 정체성과 감성을 담았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시민의 실제 탑승 경험이었다. 좌석 환경, 손잡이 위치, 승객 간 프라이버시, 위생과 착좌감 등 탑승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끝 좌석 승객과 같은 손잡이 부재 공간과 출입문 인근 입석 승객 간의 물리적 간섭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였다. 여기에 부산교통공사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 디자인사의 UX 분석을 결합하여 공공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부산 2호선 신조전동차는 부산의 일상 속에서 오래 머물 새얼굴이다. 

접수번호	G2026A06_00029
작 품 명	코웨이 비렉스 R시리즈 스트레칭 모션 베드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가구 디자인
작품설명	비렉스 R시리즈 스트레칭모션베드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의 기존 기능성 침대에서 탈피하여, '가구로서의 따뜻한 감성'과 '최첨단 헬스케어 기술'의 조화로운 융합을 목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 공간과의 시각적 조화 (Aesthetic Harmony): 복잡한 에어셀과 구동 메커니즘을 내부에 완벽히 숨겨 정제된 가구의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하운드투스 와 헤링본 패턴의 프리미엄 패브릭, 그리고 감각적인 컬러(오프베이지, 딥블루 등)를 적용해 침실 공간의 아늑함과 프리미엄 가치를 높였습니다. • 개인 맞춤형 경험의 시각화 (Modular Flex):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사이즈, 기능, 헤드보드 형태, 컬러를 최대 81가지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슬립 시스템 81' 모듈러 콘셉트를 도입해 디자인의 확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인간 중심의 안전 설계 (User-Centric Safety):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시각적·기능적 노이즈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심리적 평온함 속에서 깊은 휴식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7_00007
작 품 명	코지 커브 엘리베이터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운송기기 디자인
작품설명	최근 주거 상품의 고급화에 따라 엘리베이터 역시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어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직선의 획일화된 디자인과 차가운 톤이 주를 이루어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제품은 기존의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과 우드톤 마감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안정감과 아늑한 공간감을 구현하였다. 매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이동 공간을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닌 감성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통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접수번호	G2026A07_00006
작 품 명	농업용 자율주행 동력운반차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운송기기 디자인
작품설명	본 자율주행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디자인 의도는 고령화된 농업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기술에 맞춘 미래지향적 모빌리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적인 디자인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적응형 구조 디자인 (Robustness): 거친 실제 농작업 환경에서도 조작부와 내부 프레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한 전면 커버형 외관을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작업 공간에 따라 적재함이 자동으로 확대 및 축소되는 가변형 구조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Usability):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기존 조작부를 정리하여 시인성이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대형 버튼, 다이얼식 속도 조절기를 배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시인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 (Visibility): 야외 작업 시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조 색상과 형태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체성 확립 (Product Identity): 기존 농기계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농업 모빌리티로서의 혁신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일체감 있는 조형 라인과 고유의 CMF 전략을 통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의도입니다



접수번호	G2026A06_00028
작 품 명	핏터 시리즈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가구 디자인
작품설명	1)본 제품의 디자인 의도는 전자기기 중심의 현대 업무 환경을 더 편리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데스크는 전원과 배선 구조가 하부에 숨겨져 있어 접근이 불편하고, 사용자가 전선을 정리하거나 멀티탭을 조작하기 위해 몸을 숙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사용자의 반복적인 불편을 관찰하고, 전원 접근과 배선 정리를 데스크 디자인의 주요 기능으로 재해석했습니다. 2)조형적으로는 자연의 침식과 풍화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우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조각적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다릿발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제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요소로 발전시켰습니다.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기존 데스크 구조에서 벗어나, X·Y·Z축을 가진 입체적 형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한 선과 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3)동시에 여러 대의 책상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는 통일감 있고 정돈된 인상을 주도록 비례와 형상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즉, 단품으로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오피스 공간에서는 안정적인 질서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A03_00003
작 품 명	하이브리드 안티드론 건
작품부문	제품디자인 > 산업기계 및 공구
작품설명	기존 제품에서 확인된 무게 밸런스 불균형, 장시간 파지 피로, 비직관적 조작, 정보 시인성 저하, 배기열 간섭, 결착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임. 본 제품은 실제 전술 운용 환경을 기준으로 무게 중심 기반 그립 배치, 파지 상태에서 즉각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 후드형 디스플레이 구조, 전방 송풍형 방열 구조, 스탠드 결착 구조를 적용함. 이를 통해 운용자의 피로와 조작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휴대 운용과 거치 운용 모두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단순한 총기형 외관이 아니라, 첨단 장비의 기술 신뢰성과 현장 운용자의 대응성을 함께 높이는 휴대형 안티드론 장비 구현을 목표로 함. 

접수번호	G2026B02_00041
작 품 명	하나카드 X 지드래곤 콜라보레이션 카드 패키지 시리즈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DREAM INTO ART'를 콘셉트로 금융상품인 카드를 하나의 컬렉터블 아트 오브제로 재해석하였다. 단순히 카드를 전달하는 패키지가 아닌,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경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젝트는 예술 작품이 전시장에 도착해 관람객에게 전달되고, 다시 일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운송(Transportation)-전시(Exhibition)-파생(Derivation)이라는 세 단계의 스토리로 구성하였다. 프리미엄 패키지는 작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시그니처 패키지는 전시장 액자, 체크카드 패키지는 전시 굿즈를 각각 모티브로 하여 하나의 전시 경험을 완성하였다. G-DRAGON이 직접 디자인한 카드 플레이트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개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경험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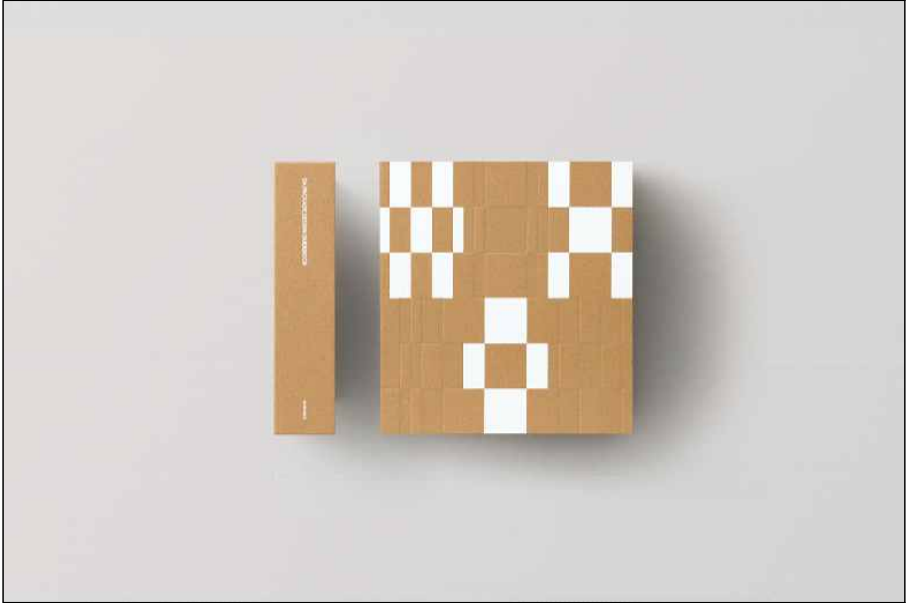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B02_00019
작 품 명	류40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RYU는 단순히 술을 담는 용기가 아닌, 자연의 시간과 풍경을 함께 담아내는 브랜드 경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연이 남긴 흔적을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한국적인 미감과 자연의 서사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병은 강화도 갯벌에 남겨진 물결의 흔적인 '연흔'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자연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패턴을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구현하였습니다. 패키지 전반에는 한국 전통 미학의 핵심인 여백의 미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아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라벨은 대한민국 대표 캘리그래퍼 강병인 작가가 직접 쓴 '류'서체를 중심으로 한지의 질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라벨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B02_00012
작 품 명	더후 APEC 환유 국빈세트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본 디자인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의 전통 궁중 문화를 현대적 럭셔리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한국 궁중 문화의 정수를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기획되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국가 간 의미 있는 교감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경주의 역사적 상징물인 '얼굴무늬 수막새'와 천년 고도의 미학을 모티브로 하여,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접수번호	G2026B02_00050
작 품 명	LG 사운드시위트 패키지디자인 아이덴티티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이번 프로젝트는 Sound Suite만의 독보적인 패키징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제품이 지닌 차별화된 가치와 특별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존 전자제품 패키지는 신기술과 사양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각적 복잡성을 초래하거나, 제조사 관점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의 나열이 아닌 사용 경험과 감성을 중심의 패키지 디자인을 지향했습니다. Sound Suite을 단순한 음향기기가 아니라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적 오브제로 재해석하며, 네 가지 제품군의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통해 사운드바·서라운드 스피커·서브우퍼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기적으로 확장·조합되는 시스템적 가치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Sound Suite의 기술적 확장성과 프리미엄 경험이 패키지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미학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패키지 구조, 그래픽, 기능성, 친환경 소재 등 모든 요소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듯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완성도와 감성적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패키징 경험을 만들어내며, 제품의 본질적 가치와 브랜드 철학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접수번호	G2026B01_00023
작 품 명	업사이클 패키지 가이드 북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작품설명	가전 패키지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성'은 종종 시각적 장식이나 마케팅 메시지에 머무르며, 실제 제작 운영 단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품군이 다양한 가전 사업 특성상, 패키지 디자인 원칙이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파편화 되어, 브랜드 일관성과 정보 전달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성을 선언에서 실행 가능한 디자인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디자인 접근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스타일이 아닌 시스템적 사고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전제로, 가전 패키지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재정리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본질 중심(Essential-driven)의 디자인 전략을 채택했다. 가이드는 단일 제품이 아닌, 다양한 가전 제품군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한 위계, 반복 가능한 구조, 확장 가능한 디자인 논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제작, 브랜드 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브랜드는 장기적인 디자인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전 시장에서 친환경을 표면적 메시지로 소비하는 방식과 달리, 지속 가능성을 실제 실행 구조로 보여주어 명확한 차별화를 만든다. 이는 단기적 마케팅 효과를 넘어, 브랜드의 환경적 책임과 디자인 철학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자산이 된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환경 변화와 제품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패키지 디자인 인프라로 작동한다. 

접수번호	G2026B02_00047
작 품 명	삼성 모바일 디자인 오리가미 패키지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이 프로젝트는 "Essential"한 패키지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만으로 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본질만 남겨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끊임 없는 도전 끝에, 종이의 물성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Origami'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잉크와 접착제를 제거하고, 디보싱만으로 그래픽을 표현하여 미니멀한 시각적인 효과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한 재생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조형적 실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패키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해법이자 혁신의 아이디어라고 확신합니다. The project's goal was to design an "Essential" package, inspired by the challenge: "Can we create a package using just one sheet of paper?" Stripping away all non-essential components, we sought the core essence, finding inspiration in Origami. By eliminating ink and adhesives and embracing debossing for graphics, we minimized environmental impact while maintaining visual appeal. Utilizing our own recycled paper, we transformed this endeavor into a sustainable alternative, pushing beyond a simple design experiment. This innovative approach redefines packaging conventions and sets a new benchmark for industry creativity and sustainability. 

접수번호	G2026B01_00005
작 품 명	환아 보호자를 위한 웰니스 키트 'Voices for Long Nights'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작품설명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환아 곁에는 24시간 돌봄을 이어가며 극심한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겪는 보호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은 기존 헬스케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로서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STUDIO OKGO, RMHC Korea,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협력해 맞춤형 웰니스 키트를 기획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한화손보는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수집한 보호자들의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온기가 퍼져나가는 형태의 파라메트릭 그래픽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해당 그래픽은 패키지와 메시지 카드 전반에 적용되어 보이지 않던 진심을 손에 닿는 브랜드 경험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료원 필드 리서치를 통해 보호자들이 좁은 병상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 웰니스 브랜드 식스티세컨즈와 협업해 보호자 전용 콤팩트 베개와 안대를 구성했으며, 병실 내 생활 소음과 의료 장비 소음 문제를 고려해 Loop 이어플러그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롤온과 팔사 빗 등 긴장 완화를 돕는 웰니스 아이템을 더해 신체적·정서적 회복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견고한 패키지 구조부터 개별 구성품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된 본 키트는 '정서적 연대'와 '실질적 회복'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사회적 메시지와 데이터 기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리서치를 결합해 돌보는 사람을 다시 돌보는 새로운 웰니스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접수번호	G2026B02_00053
작 품 명	K-디저트 프리미엄 선물세트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빛은 프리미엄 K-디저트 선물세트는 브랜드 철학인 '**정성으로 빛다**'를 현대적인 선물 경험으로 확장한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전통 떡 제조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반복되는 손길, 한복의 겹 구조에서 착안한 '레이어링(Layering)' 개념을 디자인의 핵심 언어로 재해석하였습니다. 8개의 개별 박스는 각각 하나의 산수 풍경을 이루는 요소로 구성되며, 모두 조합되었을 때 한국의 산맥이 이어지는 파노라마 풍경을 완성합니다. 금박 태양과 은박 달은 시간의 흐름과 한국적 미감을 상징하며, 겹겹이 쌓인 시간과 정성을 하나의 프리미엄 선물 경험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B01_00001
작 품 명	웰니스를 향한 시각 경험 구축: 한화손보 일러스트레이션 아이덴티티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작품설명	[비즈니스 실용성과 정서적 공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범용적 시각 언어] 한화손보의 일러스트레이션 아이덴티티는 무형의 금융 상품을 고객이 따뜻한 온기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듈형 시각 언어입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자칫 딱딱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이 금융의 속성을 온화한 시각 서사로 치환하기 위해, 당사는 고도의 확장성을 갖춘 디자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정교하게 규격화된 벡터 그래픽 모듈에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 일상적인 행동, 그리고 의료나 금융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각각 독립적인 블록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실무 디자이너들은 이 블록들을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립하여, 모바일 앱의 작은 아이콘부터 옥외 대형 인쇄물까지 매체의 크기와 성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형 구조는 시안 제작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무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보험 시장에서, 브랜드가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력이 됩니다. 또한, 특정 타겟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노소와 기업(B2B) 고객을 두루 아우르는 범용적인 메타포를 적용해 정보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모든 온-오프라인 접점에서 일관된 따뜻함을 전달하며, 기업의 상업적 효용과 사용자의 정서적 편의를 완벽히 결합해 냈습니다. 

접수번호	G2026B02_00044
작 품 명	매실매실 무설탕 매실 액상 스틱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작품설명	"매실매실하다. '까다로워 알뜰다'라는 순우리말" 우리는 이 알미운 단어에서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디자인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업계의 오랜 관행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 알미운 간간함이 바로 '매실매실'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책임과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일상에 마음이 얹히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존 매실 식품의 95%가 고집하는 '설탕 절임'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실매실하게' 굴기로 했습니다. 설탕 없이 매실 본연의 가치를 건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37번이 넘는 레시피 테스트와 수백 번의 시음 끝에 찾아낸 최적의 배합비는, 임산부도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무설탕(Zero Sugar) 웰니스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원료의 배합부터 일상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소화해 내는 섭취의 순간까지. '매실매실'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간간하고 '매실매실하게' 완성한 디자인입니다.
	

접수번호	G2026B13_00022
작 품 명	가마찜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작품설명	가마찜의 디자인은 한식의 전통성을 문양이나 장식으로 직접 표현하기보다, 가마가 지닌 시간성과 온기를 현대적인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가마의 온기'는 좋은 재료와 기다림, 손끝의 정성이 만나 완성되는 따뜻한 한 끼의 경험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한국 문화의 흐름 속에서, 한글이 지닌 고유한 조형성과 정서를 브랜드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로고는 '가마찜'의 초성을 기반으로 설계해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조형과 질감은 매끈하게 정돈된 인상보다 흙을 빚고 불에 그을린 듯한 투박함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가마와 숯, 손으로 만든 그릇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거친 물성을 담기 위한 선택입니다. 완벽하게 정제된 형태가 아닌, 손의 흔적이 느껴지는 불규칙한 선과 질감을 통해 깊은 맛, 정성, 따뜻한 환대의 감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마찜은 전통 한식을 과거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음식과 공간, 물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현대적인 한식 다이닝 경험을 제안합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브랜드 경험을 완성하는 것이 디자인의 핵심 의도입니다. 

접수번호	G2026B13_00037
작 품 명	뮤직 스튜디오 비주얼 브랜딩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작품설명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의 비주얼을 먼저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인 제품의 형상, 성능, 그리고 집에 놓였을 때의 모습 등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작업의 첫 번째 목표였다. 동시에 제품의 디자인 철학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인 DOT을 선택하였다. DOT 요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변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제품의 정보와 함께 자사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다. 뮤직스튜디오 비주얼 브랜딩 결과물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타겟 유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어려운 표현이나 복잡한 형식은 배제하고 심플하고 명료하게 제작되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주얼 브랜딩을 완성했다. 

접수번호	G2026B13_00044
작 품 명	멀티 브랜드를 위한 기프트 카드 컬렉션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작품설명	이 프로젝트는 기프트카드를 단순히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저장 가치의 수단이 아니라, 주고받는 순간부터 즐거움을 전달하는 선물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PC의 다양한 베이커리, 디저트, 다이닝 브랜드를 하나의 기프트카드 시스템 안에 담기 위해, Happy Imagination이라는 우산형 콘셉트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대표 제품의 매력은 유지하면서도, 전체 라인업이 하나의 응집력 있는 브랜드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브랜드의 슬로건과 철학에서 도출한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을 위트 있고 상상력 있는 비주얼 장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다 직관적이고 확장성 있는 이미지로 발전시키는 시각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상상 장면을 하나의 통합된 디자인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접수번호	G2026B13_00001
작 품 명	제주 그린어워드
작품부문	시각/정보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작품설명	비영리공익법인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에서 주최하는 제주 그린어워드는 제주의 환경을 지켜온 제주도의 단체와 개인의 공헌을 기리는 환경 시상식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어워드의 정신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BI부터 상패, 머천다이즈, 행사 운영 전반에 이르는 모든 접점에 제주도라는 지역의 의미와 친환경적 실천을 일관되게 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서 발생한 폐기물, 즉 건축 현장의 자투리 현무암, 해안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과 폐그물을 업사이클하여 상패와 패키지를 제작하고, 제주의 방언과 자연, 삶의 풍경을 BI에 녹여냈습니다. 수상자들이 받게 되는 결과물 자체가 그들이 지켜온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물성으로 증명하도록 설계하여, 어워드의 메시지와 디자인의 재료성을 일치시켰습니다. 

접수번호	G2026F01_00016
작 품 명	주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용융랩」으로 만들어가는 한강로동
작품부문	서비스/경험 디자인 > 서비스/경험 디자인
작품설명	한강로동 일대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저층 노후주택과 상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오랜 시간의 켜를 간직한 지역 고유의 공간이다. 본 디자인은 무질서해진 주거와 상업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의 건축적 질감 위에 현대적 감성을 입히는 '헤리티지 모던' 을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디자인 정체성에 담고자 하였다. 이에 시설물과 그래픽 모티프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구분하는 '타운하우스 시스템' 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한강로동을 정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생활안심 공동체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단순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가 아닌 거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규칙을 함께 가꾸어가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브랜드로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가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통합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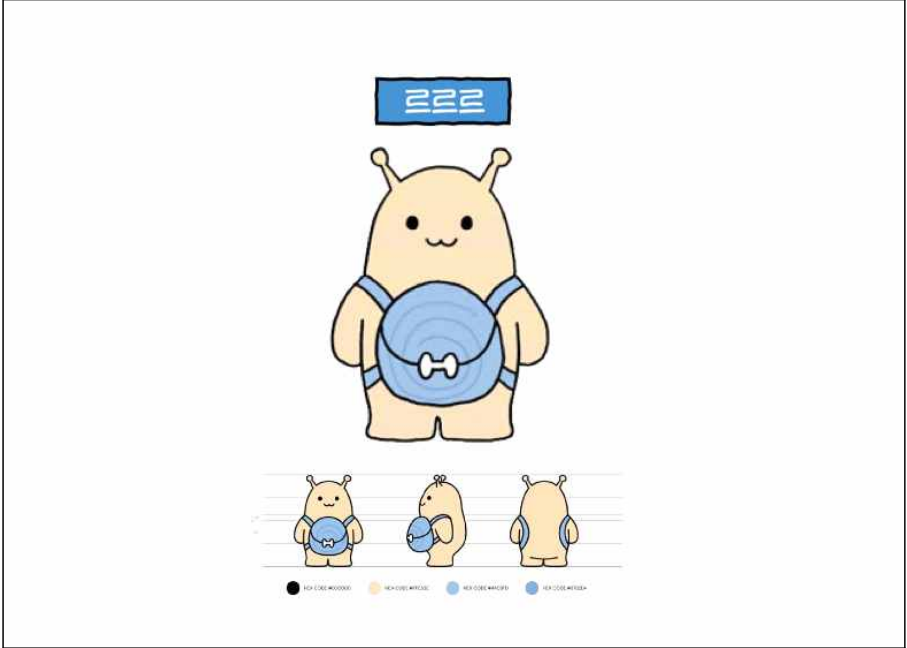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F01_00012
작 품 명	해녀, Sea Divers of Jeju
작품부문	서비스/경험 디자인 > 서비스/경험 디자인
작품설명	"해녀"는 보드게임이라는 보편적 행위를 통해, 제주 해녀와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등을 쉽고 직관적인 신호체계로 보여줍니다. 게임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은 일관되게 다음의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1. 제주 문화 아이콘을 적극 활용 - 돌하르방, 테왁(물에 뜨는 바구니) 등 제주 해녀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인 구성물로 디자인하여, 단순한 게임을 넘어 제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직관적인 심해의 시각화 - 메인 보드는 밝은 하늘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통해 수면에서 심해로 이어지는 공간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투명한 아크릴 소재의 해녀 말은 실제 물속에서 물질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플레이어가 심해를 탐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3.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 강조 - 해녀와 거북이, 물고기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이 어우러진 일러스트는 해녀 문화가 자연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게임 내 해양 쓰레기 타일을 수거하면 점수를 얻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디자인에 도입하여, 환경 보호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합니다. 4. 감성적 연결과 문화적 자부심 - 밝고 자신감 넘치는 해녀의 표정을 게임 패키지에 배치하여, 해녀라는 직업이 가진 문화적 자긍심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5. 보편적 정보 전달의 용이성 -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한 심볼 체계와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을 적용하여,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게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F01_00004
작 품 명	Beyond X™ SMI
작품부문	서비스/경험 디자인 > 서비스/경험 디자인
작품설명	Beyond X™ SMI의 디자인 의도는 제조 현장의 복잡한 데이터와 공정 구조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는 방대한 수치와 복잡한 메뉴 구조로 인해 숙련자 중심의 사용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Beyond X™ SMI는 데이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현장을 보고, 선택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흐름을 하나의 직관적인 서비스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전체를 조망하는 탑다운 뷰와 실제 작업자 시야에 가까운 1인칭 뷰를 연결해, 사용자가 거시적 공정 흐름과 미시적 설비 상태를 상황에 따라 전환하며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의 전환'을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 3D 디지털 트윈 환경과 2D 데이터 패널을 결합하여, 현실감 있는 공간 인지와 명확한 정보 가독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전, 다양한 변수를 가상으로 조정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사용자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불량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제조 의사결정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Beyond X™ SMI는 제조 데이터를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 대상'이 아닌, 비숙련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성, 예측 기반의 혁신성, 산업 현장 전반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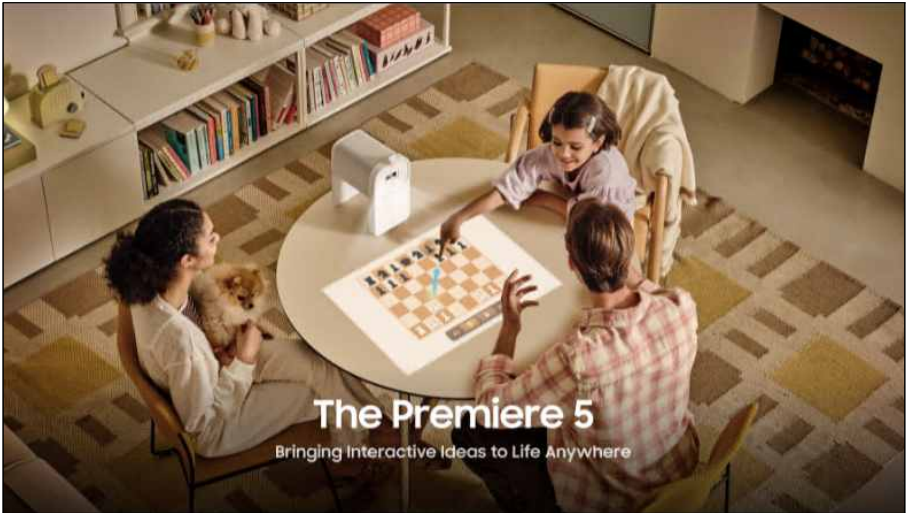
접수번호	G2026F01_00021
작 품 명	Samsung b.IoT Enterprise
작품부문	서비스/경험 디자인 > 서비스/경험 디자인
작품설명	b.IoT Enterprise는 기존 건물 운영 시스템의 복잡한 구조와 기술 중심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운영자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통합형 건물 운영 UX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관제 과정에서 시스템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은 기능 단위가 아닌 운영 단위 중심으로 재정의됩니다. 모니터링과 제어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어 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한 상태 정보는 시각적으로 구조화되고 일관된 규칙에 따라 표현되어 빠른 판단과 오류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은 모듈 단위로 표준화되어 다양한 장비와 운영 환경에서도 일관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반복 가능한 인터랙션 구조와 표준화된 컴포넌트를 통해 학습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b.IoT Enterprise는 기술 중심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자의 판단과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 경험 기반 건물 운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접수번호	G2026C02_00001
작 품 명	플로우, 그 후 : 엉터리 해설 퍼포먼스
작품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작품설명	<FLOW, Thereafter: A Misinterpretation Performance>의 핵심 디자인 의도는 현대미술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해체하고, 관객이 작품의 능동적 해석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기존 전시는 작가 의도 중심의 일방적 해설에 치중하여 관객이 자유로운 해석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엉터리 해설 퍼포먼스'라는 독창적 개념을 도입해, 하나의 원작을 의도적으로 원작의 의도에 구속되지 않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으로 확장함으로써, 감상의 정답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티스트 남진우의 <Star Cliff>(2023)을 '숨고 찾는 놀이(Hide-and-Seek)'와 '먹기 위한 사냥(Edible Hunt)'이라는 두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캐릭터 퍼포먼스로 시각화함으로써 관객이 유머와 긴장감 속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탐색하도록 설계했다. 런던 아우터넷의 5면 대형 스크린 환경은 이 아이디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관객이 물리적 공간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체험하는 참여형 감상 구조를 완성한다. 

접수번호	G2026C01_00005
작 품 명	르르르
작품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콘텐츠 디자인
작품설명	르르르는 '현대자동차에 다니지만 차는 없는 두벽이 직장인'이라는 유쾌한 반전 설정에서 출발한 캐릭터입니다. 이는 완벽하고 전문적인 모습만 추구하던 기존 대기업 마스코트의 공식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접근입니다. 매일 지옥철에 시달리는 Z세대 직장인의 불완전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투영하여, 대중에게 '브랜드 대변인'이 아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두벽이 대표 크리에이터'로 다가가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반복되는 피로와 설렘, 불편함과 기대감 등 일상 속 이동 과정의 복합적인 감정을 둥글고 친숙한 시각 언어로 재해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이동 경험'을 이야기하며, 브랜드와 대중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딱딱한 현대인의 일상에 온기를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르르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이동 문화와 생활 경험을 친숙하게 전달하는 두벽이 대변인이자 감정적 공감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속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접수번호	G2026C04_00006
작 품 명	Accessibility Design for Home Appliance
작품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인터랙션 디자인
작품설명	전통적인 가전제품은 다이얼, 물리 버튼, LED 조명 등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로 인해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웠고, 장애를 가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이 적용되면서 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술 진보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을 사용하는 과정에는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선택하고 설정하는 인지 과정, 당기고 들어 올리는 신체 동작이 수반되며, 이 중 하나라도 한계로 작용하면 전체 경험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특정 사용자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았고, 분리된 솔루션이 아닌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접근성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성 컴포넌트, 쉬운 사용 모드, 자동 문 열림 기능 등을 적용하여 가전이 제공하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기능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모두를 위한 기술을 지향하는 디자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가전 접근성 경험 디자인은 모두를 아우를 때 큰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의 디자인 시스템은 시각 보조*, 쉬운 사용 모드, 자동 문 열림*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 나이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각 보조: 화면을 확대, 축소, 회전, 색상 변환 기능과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자동 문 열림: 세탁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세탁실 문을 열어줍니다. * 쉬운 사용 모드: 세탁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알림과 오류 메시지를 최소화하여 사용자가 세탁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 문 열림: 세탁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세탁실 문을 열어줍니다. * 쉬운 사용 모드: 세탁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알림과 오류 메시지를 최소화하여 사용자가 세탁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번호	G2026C02_00007
작 품 명	Samsung MCPTX Solution
작품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작품설명	MCPTX UX는 화재, 강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응급대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스트레스 상태와 대량의 사건 정보 속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 직관적 조작성과 정보 인지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현장 리서치에서 확인한 문제의 본질은 기능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부하 및 파편화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을 더하기보다 흩어진 흐름을 수렴시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MCPTX Solution은 전통적 무전기를 넘어,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범용 재난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iOS 및 Android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모바일 특화 기능을 모듈화하면서도 기존 무전기의 핵심 사용성을 유지해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한 Video stream, geo-location, contextual analysis와 같은 복합 인터랙션을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역할 기반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Person Down 자동 감지처럼 요원이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스템이 먼저 위험을 감지, 전파하도록 설계해, 단말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사람을 먼저 챙기는 능동형 안전 패러다임'을 지향했습니다. 이는 공공안전 UX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접수번호	G2026C04_00010
작 품 명	더 프리미어 5
작품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인터랙션 디자인
작품설명	The Premiere 5는 대형 터치 인터랙티브 프로젝터로, 벽과 테이블 등 가정 내 모든 표면을 40인치 터치 인터페이스로 전환함으로써 디스플레이를 고정된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최대 10명의 동시 터치를 지원해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소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화면 앞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직접 화면을 생성할 수 있어 기존 고정형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용 방식과 멀티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기존 스크린 경험이 개인 중심의 디지털 경험에 머물렀다면, The Premiere 5는 모두가 함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 사진을 확대해 함께 보고, 터치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정보를 공유 하는 등,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The Premiere 5는 초단초점(UST) 기술과 고정밀 멀티터치 센서를 결합하여, 터치할 수 없는 불편함과 가까운 거리에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화면 터치를 통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단순한 영상 재생 도구를 넘어선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혁신은 사용자를 '단순 시청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키며, 프로젝터를 정적인 시청 기기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매끄러운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스크린'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1_00011
작 품 명	아모레용산 리뉴얼 프로젝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실내건축 디자인
작품설명	아모레용산 리뉴얼 디자인은 기존 판매 중심 공간을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성격에 맞는 열린 플래그십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계획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와 서비스를 한 공간에 넣는 것보다, 고객이 공간의 깊이와 각 영역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 동선, 조닝, 소재의 위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면부는 개방감을 높여 본사 방문 고객이 부담 없이 진입하도록 하고, 중앙 쇼룸은 공간의 시선이 모이는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신제품과 주요 콘텐츠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장치로 계획했습니다. 서비스 존은 기능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선물공간은 다크우드로 아늑하고 깊이감 있게, 헤라 맞춤형 공간은 블랙으로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시티랩은 유리와 밝은 톤으로 투명하고 미래적으로, 스칼프 서비스는 창가 자연광과 우드톤으로 편안하게 구성했습니다. 브랜드 벽장은 우드 기반의 라이브러리 구조로 계획해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정돈되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VMD와 그래픽, 사이니지는 이러한 인테리어 구조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의 안정감은 유지하면서도 시즌과 서비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위치한 장소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아모레퍼시픽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름다움과 AI, 고객 연구 기반의 뷰티 경험을 직접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의 의도입니다. 

접수번호	G2026D01_00016
작 품 명	UX스튜디오 서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실내건축 디자인
작품설명	UX스튜디오서울은 고객이 미래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하고, 차량 UX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열린 연구공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상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연구소 안에 머물지 않고 강남대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보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성 높은 커튼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UX 콘텐츠를 체험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해, 누구든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UX 연구는 목적과 방식이 다양한 만큼, 공간에 요구되는 형태와 기능도 계속 달라집니다. 부품 구성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브레드보드(Breadboard)의 특성을 모듈 시스템으로 개발해, 연구 목적마다 다른 형태와 기능이 필요한 UX스튜디오에 적용했습니다. 1m×1m 그리드 기반의 모듈 시스템으로 구조물, 조명, 장비를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어, 인터뷰·테스트·전시·워크숍 등 어떤 연구 상황에도 공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구가 바뀔 때마다 새로 짓는 대신 같은 공간을 다르게 구성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UX스튜디오서울은 고객과 브랜드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의 공간입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53
작 품 명	20만 평 역사평원, 압도적인 민둥산 경험루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민둥산은 광활한 역사평원과 돌리네 지형, 폐광과 화전민 문화가 공존하는 독창적인 자연유산이지만, 기존 등산로와 안내시설은 장소의 특성과 경험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민둥산만의 자연환경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방문객의 등반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이용자가 자신의 체력과 목적에 맞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4개의 경험루트를 개발하고, 진입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공간 경험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산을 '정복하는 대상'이 아닌 자연 속에서 비우고 회복하는 경험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자연과 역사, 지형이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연결되는 장소브랜딩형 환경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접수번호	G2026D03_00063
작 품 명	와일드블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와일드 블룸은 '놀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놀이가 발생하는 정원을 설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아파트 놀이터가 특정 시설과 공간 안에서 정해진 놀이를 제공하였다면, 본 프로젝트는 숲과 초지, 물과 정원이 하나의 놀이 환경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은 정해진 놀이기구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이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탐험가가 된다.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경험하며 감각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또래와의 협력과 도전을 통해 사회적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정원이다. 공간계획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숲과 계류, 초지와 같은 자연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공 시설물 역시 자연의 형태와 질감이 닮은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이질감 없이 경관 속에 스며들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정원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플레이헌터하우스, 헌터스아지트, 빅림쉼터 등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 속 모험 세계를 구성하는 장치가 되어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와일드 블룸의 숲은 더욱 우거지고, 그들과 자연의 풍경은 깊어진다. 일반적인 놀이터가 시간이 지나면 시설의 가치가 감소하는 공간이라면, 와일드 블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이 성장하고 경관과 놀이 경험이 함께 풍부해지는 어린이정원이다. 고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자연과 함께 변화하며 기억과 놀이가 함께 쌓여가는 살아있는 정원 놀이공간을 지향하였다. 

접수번호	G2026D02_00002
작 품 명	더샵 파빌리온 X (더샵 송도그란테르 모델하우스)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전시 및 무대 디자인
작품설명	견본주택은 분양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임시적인 전시공간에 머물렀으나, '더샵 파빌리온X'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존의 기능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점 브랜드 전시관이자 체험공간으로 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관 및 파사드 디자인 리뉴얼과 함께 내부 관람의 시퀀스 동선과 전시 기법을 강화하여 입체적인 브랜드 경험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05
작 품 명	필로티가든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본 프로젝트는 자연광과 우수 유입이 제한되는 필로티 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새로운 조경 경험의 기능성으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생화 식재와 대형 수목 도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감성과 휴식의 분위기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인조식물과 자연석, 락가든, 조명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감성적인 생활 풍경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입주민의 일상 속 휴식과 머무름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연석과 멀칭이 만들어내는 정적인 풍경 위에 식재의 질감과 따뜻한 조명을 더해 작은 갤러리형 정원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제한된 구조 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포켓형 휴게정원과 프라이빗 라운지, 어린이 놀이 공간 주변의 감성적 조형 요소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경 공간으로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93
작 품 명	빅트리 포레스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산맥처럼 깎여진 3M 높이의 경사 언덕 위로 솟아오른 나무 형상의 타워와, 그 아래로 시원하게 활강하는 7m 메가 슬라이드를 놀이터 뒤로 펼쳐지는 산의 풍경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연출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자연 지형과 놀이시설이 하나의 풍경으로 어우러지며, 숲속에서 모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숲세권 입지의 장점을 극대화한 랜드마크 공간으로,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놀이터 풍경 뿐만 아니라 티하우스에서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선사합니다. 또한 놀이대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공간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의 사계절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를 적용하였습니다. 봄의 생동감, 여름의 풍성함, 가을의 깊이감, 겨울의 차분함을 담은 색채 계획과 메가 슬라이드의 포인트 컬러를 통해 숲속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시선을 끄는 랜드마크로 완성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1_00021
작 품 명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본사 로비 리노베이션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실내건축 디자인
작품설명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은 기업 로비를 단순한 브랜드 전시 공간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살아있는 광장'으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 변화와 함께 확장된 업의 개념, 새로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변화하는 조직 문화를 공간에 반영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초기 단계부터 인상적인 공간 연출보다 '사람'의 경험과 활동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 아이디어 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로비를 정적인 전시 공간이 아닌,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와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공간(Lively Space)'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환경을 통해, 임직원과 방문객이 실제로 모이고 머무르며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 로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동시에, 조직의 비전과 문화, 그리고 변화하는 일의 방식이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49
작 품 명	시그니처라운지가든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하단부, 왕배산과 솔미산이 품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중리지구 개발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이곳 입주민들의 뿌리는 오랜 세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이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본 조경 계획은 개발 이전의 풍요로웠던 자연 경관과 그 속에서 누렸던 삶의 정취를 단지 내에서 고스란히 추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 시그니처라운지가든은 무더운 여름을 나던 계곡의 기억의 향수를 자극하는 자연의 요소를 공간에 투영하여, 입주민들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고향의 따스함을 선사하고자 하는 의미로 구현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2_00001
작 품 명	더샵 파빌리온 (더샵 관저아르테 모델하우스)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전시 및 무대 디자인
작품설명	리뉴얼된 내/외부 디자인은 따뜻하고 고요한 자연의 색조와 도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더샵 브랜드가 새롭게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적용성(공기 및 공사난이도)과 경제성(공사비) 등 또한 고려하여 미니멀리즘이 반영된 간결한 형태와 효율적인 마감재 적용하였습니다. 관람객의 동선에 따라 마감재의 대비감, 공간의 규모, 간접조명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시의 경험을 극대화하였고, 파빌리온 라운지를 중심으로 상담존, 모형존, 편의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28
작 품 명	마곡 MICE (CP1, CP2, CP3-1) 외관디자인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마곡 르웨스트의 디자인은 「Urban Layer & Connectivity」를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복합도시가 단순한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과 경험이 연결되는 하나의 도시적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입면은 다양한 기능이 중첩되는 도시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업무시설의 개방성과 생활숙박시설의 안정감, 상업시설의 활력을 하나의 디자인 체계 안에서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시설의 수평적 레이어와 생활숙박시설의 수직적 프레임을 대비시켜 도시 경관에 리듬감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복합단지가 가질 수 있는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풍부한 도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1_00004
작 품 명	사담재(四談齋):사계절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감성 스테이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실내건축 디자인
작품설명	건축 배치는 전통 건축의 사랑채와 안채에서 영감을 받아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합니다. 공간의 중심에는 현대의 의미를 담은 마당이 자리하며, 그 주위로 로비와 레스토랑, 문경의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은 이 중심 마당을 향해 열려 있어 시선과 동선이 끊김 없이 유기적으로 흐릅니다. 10개의 객실인 '채'는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커다란 건축적 틀 안에서도 아늑하고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외부에서 이어지는 회랑과 하늘을 투영하는 고요한 수공간은 한국 전통 건축 특유의 사색적인 서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지붕의 선과 사용된 재료들은 절제된 한국의 미학을 반영합니다. 넓게 뻗은 처마와 간결한 실루엣이 흙, 콘크리트, 질박한 목재와 어우러져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깊이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내부 공간은 좌식 문화의 비례를 따르며, 전통적인 '기둥과 보' 구조를 활용해 평온한 머무름의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객실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프라이빗 정원과 스파가 마련되어 있으며, 틈마루에서 자연으로 매끄럽게 확장되는 웰니스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공간적 통합을 통해 머무는 이는 온전히 풍경의 일부가 되며, 사계절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스테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완성합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51
작 품 명	첨성대 미디어 파사드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첨성대의 야간경관을 단순히 외형을 비추는 조명에서, 국가유산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첨성대는 동아시아 고대 천문학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야간에는 해설사의 별도 설명 없이는 ****외형 중심으로 인지되기 쉬워 천문대라는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첨성대를 매체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성대 자체를 중심에 두고 그 구조와 역할, 천문학적 상징을 읽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단색조명에서는 유산의 원형 인지를, 콘텐츠 연출에서는 의미 해석이라는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콘텐츠에 의해 가려지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첨성대의 형태를 인지하는 경험과, 첨성대가 지닌 기능과 시대적 맥락을 관람하는 경험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첨성대를 화려한 미디어 연출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대신, 야간에도 첨성대의 원형을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형 야간경관을 지향하였습니다. 

접수번호	G2026D03_00014
작 품 명	목포보성선 철도건설기념 상징조형물
작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작품설명	‘목포보성선 철도건설기념 상징조형물’은 단절되었던 남해안 철도축의 연결과 새로운 철도시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공공조형물이다. 본 작품은 철도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사람과 지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보성~임성리 철도 개통은 오랜 시간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전남 서남권의 이동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국가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조형물은 ‘연결(Connection)’, ‘출발(Departure)’, ‘경험(Experience)’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철도 개통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와 장소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열차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유선형 구조와 수평적 레이어 구성은 철도가 만들어내는 이동의 궤적과 연결성을 상징하며, 신보성역을 남해안 철도시대의 새로운 관문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형물 전면에 설치된 강화유리 투명 사이니지는 7개 정차역과 철도 개통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이용자와 공간 사이의 소통 장치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었다. 본 작품은 철도의 역사성과 지역의 미래비전을 현대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신보성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